

# 전통 농악 예술성 · 공동체 정신 빛났다

고창농악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전북문화관광재단 평가 '최우수' 단체 선정

고창군과 (사)고창농악전수관, 아트컴퍼니 고풍이 함께한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가 전북문화재단 5개 시·군 공연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공연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관객모니터링단 평가를 비롯해 공연 운영의 완성도, 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고창 노상놀이야는 "전통 농악의 미학과 공동체적 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미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는 호평이 이어지며 시진상을 기대하게 했다.

공연은 길놀이와 거점공연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무대 운영을 통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였다. 고창농악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충실히 기반으로 한 연출을 통해, 고창농악이 지닌 본질적인 매력을 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퍼레이드 형식의 공연은 고창읍성이라는 역사적 공간과 조화를 이뤘다.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공연성이 균형 있게 어우러지며 고창읍성 일대를 활용한 순회형 연출은 공연을 한정된 무대에 국한하지 않고 '움직이는 축제'로 확장시켜 관객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전반



고창군과 (사)고창농악전수관, 아트컴퍼니 고풍이 함께한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가 전북문화재단 5개 시·군 공연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의 문화적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고미숙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최우수 선정은 전통 농악이 지닌 예술성과 공동체 정신이 오늘날에도 충분히 공감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며 앞으로도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공연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호

흡하는 무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창농악전수관 아트컴퍼니 고풍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전통예술 전문 단체로서, 지역 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겨울축제 기반 · 관광 비수기 극복 탄력

'four동! 포동! 남원 겨울동화축제', 전북 겨울축제 육성사업 최종 선정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시가 진행하는 'four동! 포동! 남원 겨울동화축제'가 전북도가 주관한 2026년 겨울축제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이번엔 확보한 도비 3천만원을 포함한 총 7천5백만원을 투입해 겨울철 관광 비수기 극복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 겨울축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남원시 홍보팀은 강남 센트럴 터미널 등에 전광판을 활용한 수도권 사전 홍보를 지원하고, 관광 부서는 신관사또부임행사 등 남원



대표 관광 콘텐츠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남원시

립농악단과 남원시립국악단 공연 참여를 통해 수준 높은 전통문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시는 보유하고 있는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 고전소설 캐릭터를 활용한 퍼레이드, 화투불체험을 비롯한 전통놀이, 남원전래동화 구연, 전통매듭 만들기 체험, 화인당 한복 체험 등을 추진하고, 겨울과 동화 콘셉트를 중심으로 남원의 전통 문화와 이야기를 결합한 가족 참여형 · 체험형 겨울축제라는 점에서 여느 지역축제와 차별화되어 남원만의 겨울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미선 남원시 관광시설과장은 "축제는 기존 자원을 활용한 협업형 축제 모델로,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겨울축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군산시 수송동, 주민 작품 상설 전시하는 '수송갤러리' 운영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은하)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민철)가 행정복지센터 2층 복도를 '수송갤러리'로 조성해 2일부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한다.

'수송갤러리'는 함께하는 배움, 성장하는 우리 공간을 주제로, 꽃그림세밀화 · 캘리그래피 · 서예 · 문인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오픈을 기념해 수강생들의 교육 과정을 담은

사진전도 함께 운영한다. 첫 전시에는 3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시된 작품들은 주민들의 도전이 하나의 예술로 꽃피운 의미 있는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김민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수송갤러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성장 과정을 이웃과 나누는 열린 문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민호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4부 '굿패와 전쟁' (18)

## 물푸레나무 몽둥이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학도대나 의용군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나 이보다는 키나 덩치를 더 우선시 했는데 남준보다 어린 학생들도 의용대에 참여하거나 군 간부의 연라병으로 활동했다. 그들은 남준과 마찬가지로 인민군 세력들에 의해 가족들이 희생당한 유가족들이었다.

남준은 기초훈련반에 편성되어 각개전투와 사격술 훈련을 받았다.

1950년 11월 초순경 경찰이 먼저 고창읍에 진입하였는데 전북경찰국 제18전투경찰대와 경남경찰 2개 중대의 지원을 받아 700여명의 병력이 움직였고, 국군은 11월 말경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가 고창읍에 진입하였다.

군경은 고창읍에 진출한 이후 경찰서와 군청 주변으로 3,300V의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전류 철조망 안은 안전한 수복지역이었지만, 밖은 낮에는 군경이 밤에는 인민군 잔존세력이 지배하였다.

군경은 고창읍을 수복한 이후 고창중학교에 주둔하면서 정보원들을 활용할 수복 외 지역 인민군 잔존세력의 동태를 파악하여 작전을 나갔는데 해가 뜨면 나가고 해가 지면 돌아왔다.

1951년 1월에 국군 6중대는 8중대와 교대하였다. 1951년 봄까지 고창읍을 제외한 지역은 해가 졌을 때는 태극기가, 달이 모습을 보였을 때는 인공기가 나부꼈는데, 심지어 북한의 화폐인 북은폐가 통용되기도 했다.

남준이 속한 고창학도호국단의용대는 규모가 700여 명에 가까웠으며 3개 대대로 편성을 해 경찰과 같이 움직였고 군경유가족이나 노무자들, 국군 6중대도 함께 작전을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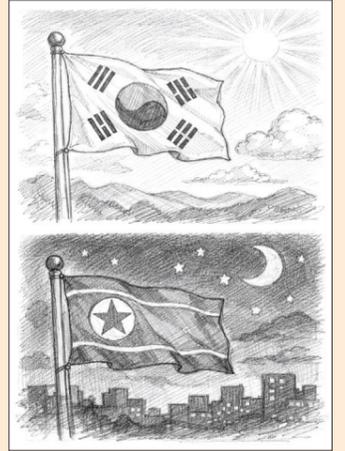
전투에서 상대방을 아군과 식별할 수 없었다. 태극기를 선호하는 양민인지 인공기를 좋아하는 인민인지 사람 얼굴을 바서는 알 수 없었다.

결국 펼쳐진 정황과 지휘관의 판단 하에 적색인지 백색인지를 구분하였으므로 무고하게 군경이나 의용대의 총에 맞아 죽는 이가 부지기수였다.

남준은 작전을 나가면서도 하루빨리 자신의 부대가 무장면에 진입하여 박대우 일행을 처단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아직 그런 날은 오지 않고 있었다.

남준은 여전히 소양증에 시달렸고 가려움 증은 더 발전해 결국 피부 여기저기에 궤양을 만들어냈다.

의료반에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디디티 살충제 분말을 뿌려줬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



러웠고 궤양은 더 극성스럽게 터지면서 부풀어 올라왔다. 팔다리와 몸통뿐만 아니라 목 주위에도 궤양이 분화구를 만들었다.

50년 11월 하순경 경찰은 무장지서를 되찾았고 무장면 일대에서 인민군 잔존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은 51년 4월까지 진행되었다.

50년 12월 중순경 경찰과 남준이 속한 학도대 병력은 무장면 신촌리에 들어갔다. 마을은 노인만 있고 남자와 부녀자,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여러 차례 작전 경험으로 봤을 때 남자와 부녀자 및 아이들은 모두 산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소대장은 마을에 남아 있던 노인들을 모두 궁터로 불러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겁에 질려 있는 노인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고 그대들은 모두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소대장은 그대들을 모두 맨땅에 앉게 하고 물푸레나무 몽둥이를 허공에 몇 번 휘두른 뒤, 이 마을 젊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냐고 소리쳤다. 노인 중 누구도 선택 나서서 말하지 않았다.

"이 몽둥이맛을 봐야 말을 하겠소!"

소대장은 몽둥이를 험하게 휘둘렀는데 바람을 가르며 소리가 났다. 몽둥이는 공터에 있던 바가지를 때렸고 껍소리를 내며 깨졌는데 굉음은 폭탄 터지는 소리와 맞먹었다. 노인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흠뻑 놀랐고 눈을 감아버렸다.

"내가..... 말하겠소. 사람들을 해치지 마시오."

노과 한 사람이 엉거주춤 일어서면서 말했다.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